

원유 사재기 극성 “오일쇼크” 우려

Fortune, 유가하락 악용 원유 거래상 투기 ... 마땅한 규제방안 없어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대형 국제 투기꾼들이 원유 사재기에 이미 나서고 있어 2009년 최악의 오일쇼크가 재현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ortune에 따르면, 미국 일부 원유 거래상 등이 배럴당 50달러 안팎에 머물고 있는 원유를 사들여 육상 저장시설에 채우고 있으며 저장시설이 모자라면 200만배럴 수준의 대형 유조선을 임대해 원유를 보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의 원유 사재기 현상이 국제유가가 거의 정점으로 치달았던 6월과 7월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는 조만간 앞으로 원유 수급에 큰 차질을 빚게 할 주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세를 악용한 투기꾼의 원유 사재기 현상은 국제 원유 선물시장의 거래 상황과 관련돼 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국제유가 동향>을 통해 2009년 11월 원유 선물가격이 현물시장에 비해 배럴당 12달러 더 높게 형성돼 있어 투기꾼들의 원유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선물 시장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가 클수록 자금력이 있는 투기꾼들은 차익을 노리고 사재기에 나서게 돼 현재는 배럴당 12달러 가량의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돼 있다.

2005년과 2006년 선물과 현물 가격간의 차익을 노린 원유 사재기가 유행한 적이 있고 투기꾼들은 각국의 원유 저장시설을 임대해 막대한 양의 원유를 저장한 후 2007년 들어 선물과 현물간 가격차가 없어지자 즉각 저장된 원유를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다.

국제유가가 치솟던 2008년 여름 미국 의회 등에서는 헤지펀드 등 투기 세력 때문이라고 지적했지만 실제 헤지펀드 등은 일회성 투기꾼에 불과해 오일쇼크와 별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헤지펀드 등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국제유가 시장에 뛰어들어 단타성 투기 매매를 할 뿐이며,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 많은 헤지 펀드들은 단타 매매에 손을 대다 손해를 입기도 한다는 것이다.

Fortune은 “원유를 사재기하고 있는 거물 투기꾼들을 겨냥한 대책이 나와야지 엉뚱한 희생양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유수의 원유 거래상들이 사재기로 원유 수급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마땅한 규제 방안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는 미국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2달러 미만에 머물고 있어 누구도 오일쇼크의 책임 소재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2/03>